

WCC 성공개최를 위한 제언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교수
동아시아생태학회 회장 **김은식**

현재 지구촌은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자연생태계가 사막과 같은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때 생물종의 생존, 세계 보호지구의 지정관리, 생태계 관리,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환경·경제·사회 정책, 환경법 등 자연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의결·권고하는 '2012 WCC' 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보전 활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1. 서언

내년 9월 6일부터 15일 사이인 10일 동안에 우리나라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로 칭함)가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으로 칭함)과 함께 개최하는 제5회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즉 '2012 WCC(World Conservation Congress)'가 제주도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자연환경단체이면서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IUCN이 매 4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의 규모나 중요성이 커서 환경올림픽으로도 불린다. 2012 WCC의 주제는 'Nature+' 인데, 우리말로 '자연+' 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의 중요성에서 자연과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관점이다. '자연+' 는 매우 빨리 변

화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자연의 회복력을 키워서, 자연과 인간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그에 합당한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념으로 제안한 이른바 녹색성장(green growth) 등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패러다임의 이념과 실천 사항을 의미 있게 전파하게 될 시금석적인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인 금년 9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인천 송도에서는 환경부와 IUCN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아시아 지역보전포럼(Regional Conference Forum, RCF)이 열렸다. 이 포럼은 '아시아지역 성장의 녹색화, 자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이 포럼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각 나라들이 당면한 자연보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2012 WCC 이후 IUCN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할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자연의 이익 공유, 생태계관리, 경제의 녹색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지역 실행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였다. 또한 '아시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가치 평가', '리우환경회의 개최 20년을 맞은 IUCN의 역할' 등의 주제를 내세운 각종 회의와 비무장지대 포럼, 우리나라 제안 의제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자연보전관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자체적인 의미 외에도 내년엔 개최될 2012 WCC의 예행연습을 하는 의미도 있었다. 이 회의에는 IUCN 아시아 19개국 회원, 국내 1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IUCN 회원 및 국내 자연환경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2012 WCC가 끝나게 될 내년 9월 15일 이후에는 이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는지에 대한 평가를 각 부문별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우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총회 참석자의 입장에서는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 까지 어떠한 감동을 받고 가느냐 하는 것을 성공의 평가요소로 삼으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총회를 개최하는 IUCN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자연보전에 관해서 IUCN이 고려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들을 참가자들이 의미 있게 논의하고, 총회 후에 IUCN을 중심으로 각 단체들이 앞으로 행동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며, 다음 총회 개최지에서 다음 번 총회를 의미 있게 개최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의 평가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총회를 공동 주최하는 우리나라 환경부와 제주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접대를 잘 해야 할 것이고, 총회 개최를 잘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총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보전활동이 큰 탄력을 받는 상황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총회를 주관하는 제주도의 경우 한 단계 뛰어 넘는 보전활동의 시범적인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환경보전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려 우리나라 국격을 환경보전 선진국의 반열에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이 총회가 세계의 자연보전에 관한 총회이기 때문에 이 총회가 다양한 차원에서의 자연보전(nature conservation)의 이념을 제고시키고, 그 활동을 진작시켜 나가며, 자연 회복력의 상태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도록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개최의 평가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보전이라는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연계하여 제시하며, IUCN과 2012 WCC 활동을 2012 WCC의 성공개최와 연계하여 논의한 후에, 마지막으로 제주도 입장을 고려한 차원에서 2012 WCC 성공개최를 위한 제언으로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

II. 보전 활동과 그 중요성

2012 WCC는 ‘자연 보전’에 관한 세계총회이기 때문에 ‘2012 WCC’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보전’과 ‘자연보전’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전’에 관해서 논의해 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보전은 영어로 ‘conservation’에 해당한다. conservation은 ‘자연을 포함한 자원을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공공적인 편익을 위하여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러한 행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은 ‘아껴서 쓰는 것’ 또는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 보전은 당연히 ‘자연과 자연자원을 아껴서 쓰는 것’ 또는 ‘자연과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conservation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자원을 이용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용보다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는 preservation과는 상당히 그 활동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애국가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인 ‘보전(保全)’이 영어에 preservation에 해당하고, conservation은 오히려 ‘보존(保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리말 용어가 과거에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어 왔었는데, 지금부터 10여 년 전 어느 날부터 이 용어의 사용이 바뀌게 되어 conservation은 보전으로 그리고 preservation은 보존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단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일단 conservation을 보전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III. 자연보전: 우리 후손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가?

우리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식탁은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식품들로 채워지고 있고, 전국의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홍수처럼 몰려다니며, 농촌에서도 고층 빌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일회용품의 사용도 일반화되어 소중한 자원을 순식간에 쓰레기로 만들어서 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세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된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흥청망청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설사 우리에게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살 수 있는 자연과 환경이 된다면 그렇게 흥청망청하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셋째, 그렇게 흥청망청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선 우리의 이러한 삶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기로 하자.

지금 우리 세계는 몇 가지 큰 환경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첫째 중요한 문제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이다. 우리 인간 사회는 자연으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와 서비스를 받아 오면서 살아가고 있다. 10여 년 전, 서기 2000년에 접어들면서 유엔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 95개국 전문가 1,360명을 동원하여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생태계 평가 연구에서는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효용)’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각의 범주 안에 세부적인 서비스를 기술하고 있다. 그 큰 범주는 Supporting Services(일차적 생산, 양분순환, 토양 생성 등 생태계의 기본적 기능 발현을 통해서 생태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Provisioning Services(식량, 목재, 연료, 섬유, 신선한 물 등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Regulating Services(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홍수, 병해 등을 방지하고 수질 정화 등 생태계를 조절하는 서비스) 및 Cultural Services(심미적, 영적, 교육적, 휴양적인 차원에서의 기여하는 문화적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Supporting Services(기본적 생태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는 생태계 자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생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MEA는 24가지 생태계 서비스 중 15가지 생태계 서비스, 즉 60% 이상의 생태계 서비스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는 이러한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물다양성의 훼손이다. 이러한 생물종 다양성의 훼손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생물종의 멸종과 연계되는데, 이러한 생물종은 우주에서 영원히 멸종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구의 생물들이 멸종되는 속도는 자연적으로 생물이 멸종되는 속도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100배~1,000배 이상 빨라졌다고 한다. 미국 Harvard 대학교 생물학자인 E.O. Wilson 교수에 의하면, 매년 3만종에 해당하는 생물종이 지구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많은 생물들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멸종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멸종과도 연계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세 번째 주요한 환경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 오면서 자원을 쓰고 남은 쓰레기를 버린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인 환경을 오염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우리가 환경의 질을 떨어뜨려서 환경과 자연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생태계의 질을 크게 저하시켜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생물들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상황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최근에는 기후변화현상이 추가적으로 더하여 심각한 생태환경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야기해 가고 있다. 금년 여름,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이른바 ‘게릴라성 폭우’ 라고 하는 국지성 비가 쏟아져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컸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최근 들어 더욱 크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이 점차 더 커져 가고 있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 우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흥청망청하게 사는 것은 과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조만간 우리 인류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곳은 점차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고, 환경문제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생물다양성을 재는 ‘모래시계’ 는 이미 계속 비워져 가고만 있는 것이다. 우리 인류는 아직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평상시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위기로 전환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s)’ 가 아직은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자연의 훼손을 계속하고 자연 자원의 낭비적 소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우리 후손들은, 다음 세대의 생존 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연이 파괴된 사막과 같은 생태계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투쟁적으로 이끌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인 “실사 우리에게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살 수 있는 자연과 환경

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흥청망청하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제시하는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자연과 자연 자원은 우리만 이용하고 끝내 버릴 것이 아니다. 자연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삶의 기반이다. 만일 그 자연적인 기반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우리 후손의 삶의 기반은 그 영속성을 상실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자연의 상태를 계속 훼손하고 자연 자원을 계속 고갈시켜 가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훼손 상태나 온전성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자연자원을 낭비적으로 허비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에 “우리는 우리 땅(지구)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빌려 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자연과 자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쓰고 남은 자연과 자원을 후손에게 넘겨주면 그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환경윤리 의식에 젖어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세 번째 질문인 “그렇게 흥청망청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할 답변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하다. “보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고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상에서 어느 생물 한 종이 멸종되는 것은 전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의 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IUCN에서는 특정한 생물종의 상태에 따라서 생물종의 멸종위기 상태를 평가하고, 당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종들을 ‘IUCN Red Data Book’이라는 형식으로 발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책들에 있는 생물종들은 우리 인류가 그 종 보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종들이다.

자연이 지닌 진정한 가치와 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행되는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는 마침내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경제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성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 시스템에서는 평소 경제 상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질 때에 장래에 닥칠 어려움에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바로 그러한 활동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conservation’, 즉 ‘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IV. IUCN의 활동과 2012 WCC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의식해, 자연을 보전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국제적 활동을 하는 기관이 바로 IUCN이다. IUCN은 자연환경 관련 전 세계 전문

가와 단체, 국가회원 등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류 복지, 녹색경제 등을 주요한 과제로 하여 세계의 자연보전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IUCN의 비전은 '자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IUCN의 임무는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의 온전성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자원의 사용이 공평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전 세계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권고하며, 또한 사회를 도와주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만들어 나가고, 실제로 행동을 해 나가며,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1948년 10월 유네스코 및 프랑스 정부가 주관한 프랑스 Fontainebleau회의에서 국가, 정부기관 및 NGO의 연합체인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IUPN)이 결성되었다. IUCN은 현재 국가 회원 86개국, 정부기관 회원 117개 기관, 비정부기구 회원 921개 단체, 제휴(협력) 회원 33개 기관 등 총 1,157개 회원이 가입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보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연환경 관련 환경단체로 발전하였고, 또한 180여 개국 11,000여 명의 전문가가 자원하여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2006년에 국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를 비롯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 제주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산림청 등 총 10개 기관이 IUCN의 국내 가입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약 20개 기관이 현재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최대 환경회의인 2012 WCC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국가회원으로 IUCN에 가입한 이후 2008년에 제주도 또한 IUCN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2 WCC의 제주도 유치를 건의했다. 이후 2009년 6월 IUCN에 2012 WCC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와 제주도, IUCN 한국위원회 등이 협업해 유치 도시인 제주도의 장점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 끝에, 2009년 11월 IUCN 사무국 소재지인 스위스 글랑에서 우리나라가 제5차 WCC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2012 WCC 개최지 선정은 객관적인 총회준비 여건과 개최지의 열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IUCN 사무국이 요구한 14개 요구조건인 컨벤션 시설, 재정적 지원, 전시·홍보공간, 교통, 숙박시설, 보안, 식당, 비자, 세금면제, 환경보전 실적, IUCN 회원 확대, VIP 관리, 개최식 및 리셉션 계획,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결과 우리나라가 멕시코 칸쿤에 비해 좋은 점수를 얻은 결과이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내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2 WCC에 해외에서 180여 개국 1,100여 개 단체에서 8,000여 명이 공식적으로 참가하며, 국내에서도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NGO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총 참가자가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총회준비를 하고 있다.

2012 WCC는 회원 중심의 회원총회와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공유 및 증진을 위한 세계보전포럼으로 열린다. 회원총회는 IUCN 회원기관인 정부기관과 NGO들이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하는 회의이다. 세계보전포럼은 전 세계의 정부기관과 NGO, 과학자,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이 모이는 아이디어 마켓과 같은 큰 포럼이다. WCC가 다른 국제환경협약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각 국가의 장관 그리고 CEO에서부터 지역사회 리더에 이르기까지 총회 참가자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2012 WCC를 통하여 전 세계 환경보전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인 빈곤 근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를 방지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달성 구축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한편 총회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의 멸종 위기 식물, 동물을 보전하는 방법에서부터 전 세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IUCN 본부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환경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더 큰 행동을 위한 진전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2 WCC 조직위는 다양한 국제협약 사무처와 연계해 생물종 다양성, 서식처,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제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012 WCC 조직위는 내년 총회에서 21세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인류복지, 경제의 녹색화, 21세기형 자연보전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제주선언문' 채택을 추진하고, 세계적 환경자원인 DMZ, 백두대간을 비롯해 황사, 해양오염, 서남해안 생태축 보호,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관측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2012 WCC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국가기관들이 조직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012 WCC 지원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특별법에 의거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MOU체결, 종합계획, IUCN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2 WCC 조직위는 WCC를 준비함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UNEP, OECD, 아세안 등 국제기구와 녹색성장과 관련한 공동의제를 개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2012 WCC 개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3,000억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함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연계할 경우 제주도가 세계 환경의 핵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으며, 세계 TOP 생태관광지로서 세계인에게 각인되고, 미래 제주 발전이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2 WCC 개최를 계기로 제주도는 2020년 IUCN이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까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자연과학분야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바 있다.

2012 W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주도는 총회 개최장소인 컨벤션센터를 세계

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컨벤션센터로 조성하고 있고, 컨벤션센터 주변에는 온라인전자자동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종이 없는 회의를 하기 위해 친환경 IT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원활한 객실공급을 위해 주요 호텔을 비롯해 체험형 숙박시설 등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호텔들과 친환경호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기타 숙박시설들의 홈페이지 구축 및 시설확충을 통해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에 세계적인 명품생태관광지로 조성을 위해 50개소의 생태문화관광로를 조성하고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을 통해 3D체험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모바일 안내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민들이 중심이 된 범도민지원위원회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2012 WCC 행사에 참여하는 세계의 환경리더들에게 제주의 참맛을 느끼게 하고, 세계생태관광관련 국제기구도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제주도를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생태관광의 허브로 만들려고 제주도는 계획하고 있다.

V. 제언

제주도는 과거 ‘돌, 바람, 여자들이 많다’는 삼다도와 ‘거지, 도둑, 문이 없다’는 삼무도의 문화 및 자연 자산을 소유한 지역이다. 필자는 이러한 삼다도와 삼무도가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환경비전을 가진 ‘신 삼다도(新 三多島)’와 ‘신 삼무도(新 三無島)’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신 삼다도와 신 삼무도에 대한 비전을 세워가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그 비전의 중심에 서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2 WCC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생색을 내기 위한 행사로 끝나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총회는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여행을 위한 행사가 아니며, 우리들의 후손의 미래가 달린 자연보전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적인 보전 총회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제주도 도민들에게는 보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 지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보전에 대한 의식의 확대가 바로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지원하는 행사인 만큼 이번 총회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행사의 성과를 단기적인 차원과 장기적인 차원에서 달성할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총회를 통해서 자연보전 활동을 하는 많은 국민들과 비정부단체(NGO)들의 활동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그러한 수준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총회가 보전에 관한 총회인 만큼 총회의 진행도 보전이라는 이념에 맞는 행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식사를 함에 있어서 귀빈이나 일반참가자나 똑 같은 대우를 받는 'One service' 제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IUCN 총재나 일반 회원단체의 참가자들이 모든 자리에서 같이 참석하고 스스로없이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IUCN 본부와 논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둘째, 숙박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경험하게 할 home-stay 행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이 행사를 주관하는 컨벤션과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회의'나, 'CO2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자급하는 회의' 등의 상징적인 구호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 행사에 참여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webcast나 그 발표 자료들을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이른 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해서 생태계 관리를 하는데 이용하거나,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생태정보를 제공하게 해서 생태관광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등 또한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이 총회에 참가할 외국의 전문가들을 미리 초청하여 특정한 자연보전 관련 행사를 실시해 보는 것도 외국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것은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를 높여 주는 좋은 방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환경수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제주도는 의미 있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세계환경수도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 줘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급, 자동차 사용 등 화석 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적응능력의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연과 자연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민에게는 진정한 보전인이 되는 기회를, 한국 사람에게는 진정한 생태계·환경보전의 선진 국민으로 가는 모범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자연이 고마워할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회의로 만들어 가야하고, 자연자원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후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자기들에게 훌륭한 자연과 자연을 넘겨 준 곳을 고맙게 생각할 또는 이러한 자원을 쓰지 않고 넘겨 준 선조를 훌륭하게 생각하고, 존경할 수 있는 회의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은 바로 보전하는 마음이 각자의 마음에, 각 사회의 규범에, 각 나라의 정책에, 전 세계인들의 공통이념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나라로서 진정한 녹색성장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민간차원에서의 자연보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조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주도 및 서귀포시와 함께 하논분화구와 같이 파괴된 생태계 분화구를 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기념비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한 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지구촌은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자연생태계가 사막과 같은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때 생물종의 생존, 세계 보호지구의 지정관리, 생태계 관리,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환경·경제·사회 정책, 환경법 등 자연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의결·권고하는 2012 WCC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보전 활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12 WCC를 지금부터 널리 알려서 전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이다. 